## 화천기계 탐방 코멘트

발로 뛰는 가치투자 연구소 김중혁 (02-6015-0492)

## "화천기계 영업직원은 담당 업체에 물건 못대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다닙니다!"

당사는 1975년 창립된이후 공작기계 전문으로 35년간 한우물만 파왔던 회사다. 2000년에 자동차 부품사업을 공작기계에 이어 추가 성장동력으로 신규사업에 추가되어 서 현재는 공작기계와 자동차부품사업을 같이 해오고 있다.

최근 IT(반도체/디스플레이)와 자동차 산업호조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.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되었다.!!

IT업체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장의 기계를 새로 놓고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. 또한 전체 매출의 20%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사업(실린더 블럭)은 수주를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.

올해도 탐방을 갔던 본사는 방배동에 있으며 직원은 110명 정도이며, 창원공장에는 종업원 220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총 330명이 근무하는 상장사 치고는 작은 회사이다. 올상반기부터 직원들 채용을 많이하기 시작한 상황이다.(현재 공장 가동율 100%이상임)

당사의 모회사는 화천기공으로 당사의 지분의 30%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는 주로 대형공장기계및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당사는 범용공작기계를 국내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다.

공작기계사업은 올해 국내시장은 폭발적으로 살아났고, 해외쪽은 이제 터닝을 한 모습이다. 그래서, 당사의 실적이 모회사인 화천기공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.

당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모두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. 또한 벨류에이션은 올해 실적기준으로 PER 4.5배에 PBR0.5배에 내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벨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다고 보여진다.

단, 당사는 현재 공장가동률 100%에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의 상황에서의 실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내년에 공장증설, 신규사업진출, M&A같은 성장의 다른 촉매는 특별히 없어보인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지금주가 2만원은 싸보이는 수준이며 목표가 3만원정도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

